



# 청소년 뺨치는 고가 아동복 '등골 브레이커'

### 캠핑·등산인구 확산에 키즈 아웃도어 열풍 셔츠 8만원대·재킷 20만원대... 소비자 부담

'아웃도어 열풍'이 유·아동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고생에 이은 제2의 '등골 브레이커'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와 함께 같은 디자인의 의류를 입고 싶어 하는 수요를 겨냥해 잇단 출시된 유·아동 아웃도어 의류가 성인 의류와 비슷한 가격

에 팔리고 있는 것. 20일 백화점 등 관련업체에 따르면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은 올해 10세 미만의 유·아동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백화점 등에 전용매장을 설치하고 나섰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지난달 말 7~11세를 대상으로 한 키즈 전용 다운

재킷 4종 등 10종을 출시하고 전국에 선보였다. 밀레가 유·아동용 제품을 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키즈 전용이지만 가격은 성인용과 비슷하다. 셔츠는 8만원대, 재킷은 20만원대가 넘는다. 블랙야크는 지난 8월 '블랙야크키즈'를 내놔다. 어른과 아이가 같은 디자인의 의류를 입을 수 있도록, 소재와 디자인을 통일했는데, 티셔츠는 3만~12만원대, 재킷은 10만~30만원대다. 반응이 좋아 연말까지 매장을 100여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키즈 라인을 출시했던 노스페이스나 코오롱도 제품 다양화에 나섰다.

유아동복을 전문으로 하는 '제로투세븐'은 아예 국내 최초 유아동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 '세르반(SKARBARN)'을 공식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시장이 빠른 성장을 이뤄내며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체들이 '아동복 라인'을 히트카드로 삼고 있다"며 "아웃도어 업체들의 제2의 전성기는 '아동복 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유·아동복의 경우 비싼 돈을 주고 산 아웃도어 의류 착용기간이 1~2년에 불과해 고가의 기능성 제품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

다. 일반 의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지만 인기 상품인 아웃도어 아동복이 또 다시 '아웃도어 의류 가격 거품'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다. 주부 한모(39)씨는 "짧은 부부들이 내 아이에게 최고의 상품을 사주고 싶어하는 구매 심리를 이용해 업체들이 허영 심리를 부추기는 것 같다"며 "수년 전 중·고생에게 열풍을 일으켰던 모 브랜드처럼, 아이들도 브랜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사할까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수출입은행 여신지원 호남지역, 전국 꼴찌

호남지역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대출·보증 지원액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지원한 전국 시·도별 기업 여신지원액 28조3821억원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을 합한 호남권 지원액은 7614억원으로 2.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호남의 수출액은 506억2000만 달러(약 54조원)로 전국의 12.2%를 차지한 데 비해 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전국의 0.3%에 불과한 977억원 지원에 그쳤고, 전남은 1.6%인 4433억원, 전북은 0.8%인 2204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영남권 지원액은 10조4524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15조8167억원(55.7%), 충청권 1조3441억원(4.7%), 강원 65억원(0.02%), 제주 11억원(0.003%) 등이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방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임을 느끼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미분양 제로를 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8일 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직원들은 결의를 마치고 판촉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기업들, 작년 1천원 팔아 34원 남겼다

### 한국은행, 46만곳 전수조사...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내 법인기업 46만 4000개를 전수조사해 20일 발표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09년엔 3.9%였던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은 2010년 4.9%로 확 뛰었다. 그러나 2011년 3.7%로 다시 꺾인 뒤 지난해는 더욱 수위를 낮췄다. 이 지표는 매출에서 원가와 이자비용 등 모든 기타비용을 제외한, 세금 부과 직전 손에 남는 순이익의 비율

이다. 즉, 2010년엔 기업이 1천원을 팔아 49원을 손에 쥐었지만 지난해엔 이 금액이 34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011년 3.6%→2012년 7.1%), 자동차(6.9%→7.2%)를 제외한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다. 제조업 전체는 5.2%로 전년도와 동일했지만, 서비스업은 2.2%에서 1.6%로 내려왔다. 기업의 성장성 역시 크게 꺾였다.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5.1%로 수직하락했다. 2010년 15.3%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에 불과하다. 매출액 역시 전기전자(2011년 2.3%→11.7%)만 올랐을 뿐 제조업(13.

6%→4.2%) 전체로 보면 크게 축소됐다. 내수부진으로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10.8%→6.1%) 역시 대폭 후퇴했다. 다만,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52.7%에서 147.6%로 낮아졌다. 석유·화학(111.9%→100.9%), 기계·전기전자(97.3%→88.7%) 등의 효과가 컸다. 차입금 의존도(32.2%→31.9%) 역시 도·소매·운수업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실적을 보면 대기업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4.6%에서 4.0%로 떨어졌고, 중소기업은 2.2%에서 2.4%로 올랐다. 매출액 역시 대기업(13.1%→5.0%)보다 중소기업(10.6%→5.3%)의 낙폭이 더 컸었다. /연광뉴스

## "신문고 올려 주세요"

### 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밀 가시 신고전화 운영

기업 현장 애로 및 국민 생활 불편 요소에 관련된 규제 발굴·개선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일 지난 15일부터 '손톱 밀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톱 밀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누구나 규제에 관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대한전문건설협 전남도회장 정종오 대표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정종오(53) ㈜제일토건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는 지난 18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대표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로 나온 정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선인사에서 "공동의 창출을 위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전문건설인의 역할이 각광받는 건설문화 창출을 전문건설의 자긍심을 바로 세우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전남 전문건설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최선을 다해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협회 중앙회 대의원과 전남도회 수석부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의원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4년간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6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3 17 20 31 44	4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05,167,550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505,585	50
3	5개 숫자 일치	1,179,014	1,845
4	4개 숫자 일치	50,000	87,784
5	3개 숫자 일치	5,000	1,409,876

##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농성동 신축·이전 개소



지난 18일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광주서비스센터에서 열린 광주서비스센터·광주전남지역본부·서광주지점 개소식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센터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100석)	취학아(90석)	미취학아(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통골레 Yona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하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